

민주 총선 공천, 음주 운전·부동산 투기자 예외없이 탈락

공천률 확정...학교폭력 등 4대 범죄 감소 등 도덕성 강화 국민 50%·당원 50% 국민 참여경선...청년 정치인 우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2대 총선 공천에서 음주 운전 전력자와 투기자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탈락시키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학폭) 전력자 등은 별도 부적격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통과하더라도 감점을 준다.

민주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제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확정·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4일 관리당원 투표(찬성 83.15%·반대 16.85%)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

(찬성 61%·반대 39%)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최종 가결됐다.

총선 공천 제도 테스크포스(TF) 단장인 이재호(담양함평영광광성)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역대 선거에서 계속 이어온 시스템 공천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도덕성 기준을 보다 강화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원

칙으로 한다. 오는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관리당원에 선거권을 준다.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는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이 있다.

음주운전의 적용 기준은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운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 등이다.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부적격 기준 중 파렴치 및 민생범죄(횡령·배임, 무면허 운전 등),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선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천 신청자는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당내 교육 연수를 16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정치 신인에 해당하는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P) 이상 높으면 단순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단순 공천 기준은 20%P 이상 격차다.

자격심사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후보자의 정보는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고 전체 관리당원을 대상으로 해당 플랫폼을 안내하는 문자를 1회 이상 발송하도록 했다.

그러나 원의 인사 등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당규를 두고 '현역 의원 기득권 유지'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 신인이 정치 무대, 총선 경선 무대에 나와서 그 래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며 신인으로서 여건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관리당원에 알릴 수 있는 조치를 당헌당규 특별당규에 보완했다"며 "실제로 확인해보면 신인 후보 중 10% 이상 앞서나가는 후보가 많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사전에 당원 명부를 쥐서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선에 임하게 규정됐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원명부는 누구에게든지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정권 1년 무너진 민생 추락한 경제

국힘 광주시당, 장성 장록습지 생태관광 협의 광산구와 간담회...국가생태탐방로 공모사업 대응 논의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김정현)이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생태탐방로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에 발 벗고 나섰다.

김정현 광주시당 위원장은 8일 시당 회의실에서 광산구청 기후환경과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 공모사업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광산구는 국내 첫 도심 국가 습지인 장록습지를 광주 대표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생태탐방로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3월 환경부에 국비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이달 중 환경부 현장실사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지원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된다. 이 사업은 황룡강 장록습지 일원에 4개 구간에 걸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민 휴식 공간과 생태교육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황룡강이 간직하고 있는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전이 필요하다"면서 "내년도 국비 예산에 실시예비 3억4000만원을 반영해줄 것을 정부와 중앙당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정무조정실장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8일 재선 김영진 의원이 발탁됐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관철승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의원은 2017년 대선 때부터 이 대표와 함께 온 이른바 '7인회'의 일원으로, 구(舊)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힌다.

이 자리는 정진상 전 실장이 지난해 11월 뇌물 및 불법 선거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공석이었다.

정무조정실 산하 정무기획실장에는 박홍근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권혁기 전 춘추관장이 임명됐다.

한편 민주당은 내달 2일 청년대변인을 선출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의도 브리핑

차산업 발전계획 5년마다 수립·부처 책임 강화

서동용 의원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8일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어 차산업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주기를 명시했다. 또, 차산업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정부가 차산업 발전 등



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현장 의견을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하여 차산업에 관한 정부 부처의 역할·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책의 지속 가능성도 도왔다.

서동용 의원은 "국내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면 차 산업이 농업 부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차 생산지역의 지원과 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이번 개정 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공공 의료시설 신·증축시 예타 면제 '신속 설립'

강은미 의원, 법안 대표 발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공공병원 등 공공 보건 의료시설을 신속하게 설립하기 위한 국가재정법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공공 보건 의료시설에 대한 신·증축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사 평가의 주체를 전문성을 가진 정부 부처와 전문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공병원 설립은 더 원활하게, 조사 평가는 전문성 있게 추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병원 설립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해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공공보건정책심사위원회가 공공병원 확충과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공병원을 설립할 때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중심으로 공공성, 지역균형성 등의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분야인데도 비용 대비 편익(B/C) 중심의 조사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광주시는 2021년 서구 치평동에 35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지 못했고 지난해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